

# 포천지역 쓰레기 대란 오나



## 소각시설 부지 선정 못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단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경기 포천지역의 생활쓰레기에 대해 반입을 전격 중단시키면서 생활 쓰레기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임시 적환장 주변은 여름철을 맞아 해충과 악취에 대한 고통이 늘어가고 있지만 주민들은 소각장 건립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차질 쓰레기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포천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차질을 빚자 공사 측은 지난 1일부터 '쓰레기 소각장 부지 공고일까지' 반입 정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에 따라 재

활용 센터 적환장에 하루 평균 50t 가량의 쓰레기를 임시로 쌓아놓고 있지만 해충 발생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하천 오염 우려 등 처리 용량의 한계로 인해 이달을 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8월 국비를 포함해 모두 267억원을 들여 오는 2007년까지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현재 재활용 센터 인근 부지에 쓰레기 소각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지난 92년 재활용 센터가 건립될 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가 약속은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채 또다시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려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소각장 건립 부지 선정에 주민들이 동의해 줄 경우 모두 75억원의 주민 지원 사업비를 투입, 도로 확장이나 우회 도로 건설 등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13일과 19일께 만세교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총회를 개최,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며, 오는 26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주민들이 소각장 부지 선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최악의 사태에 대비, 연천군 등 자체 처리 시설을 갖춘 인근 자치단체에 처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약속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동의도 가능한데다 쓰레기 소각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동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 생명력 있고 푸른 포천전설 다짐

## 제9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포천시는 지난 8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제9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갖고 환경보존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포천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보존 의식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날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포천의 환경 관련 사업계획과 비전을 밝혔다. 박 시장은 자연형 하천정비와 친수공간 조성, 수질모니터링 구축 등 생활과 자연환경을 최우선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 생명력 있고 푸른 포천건설에 관계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

녀회장, 명예환경동신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날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포천의 환경 관련 사업계획과 비전을 밝혔다. 박 시장은 자연형 하천정비와 친수공간 조성, 수질모니터링 구축 등 생활과 자연환경을 최우선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 생명력 있고 푸른 포천건설에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담부했다. 이날 기념식은 제5회 환경사랑작품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열린 정수진 (동남중 2) 학생이 "작은실천 큰 기쁨"이라는 작품으로 중등부 글쓰기 부문 금상을, 김혜림 (포천여중 2) 학생이 "소중한 자연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작품으로 중등부 환경포스터 부문 금상을, 그리고 김미경 (포천시 신음동)씨가 "양심의 현장"이라는 작품으로 일반부 환경사진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24명이 금,은,동상 등을 수상했다. 이날 공모전 입상작품은 포천반월아트홀 로비에 전시돼 기념식 참가자들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기념식에 이어 녹색예술 모임 '금수강산'이 환경 마당극 "금수강산 씩씩하고" 공연을 통해, 생명을 죽이는 문화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생명의 중요성을 관객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 사건 II 사고

### 필로폰 삼습 투약자 셋 영상

의정부경찰서는 3일 필로폰 삼습투약자 박모씨(32·동두천시 생연동) 등 3명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 1일 새벽 3시경 경기 동두천시 D모텔 306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혈관주사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삼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 포천 보험설계사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중 부장판사)는 4일 포천 여 보험설계사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심모(34), 신모(35) 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분담, 피해자를 유인,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치밀한 계획성과 잔혹성, 생명경시 행위, 사체를 보계된 가족의 심정을 고려해 사형이 마땅하나 공범 오모씨가 자살해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심씨는 공모는 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결박하는 과정에 동참하지 않고 망을 보고 있었던 점이 인정돼 감형의 여지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씨 등은 자살한 오씨와 공모, 지난 2월 20일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보험설계사 유모

씨를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창고로 유인, 1천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유씨를 노끈으로 목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 홍보비 명목 돈받은 시의원 구속

의정부경찰서는 2일 17대총선 출마 예상자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자들에게 식사와 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의정부시의회 임모(47) 의원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1월8일 모 정당 경선후보였던 이모(48,집행유예)씨에게 인지도도를 위해 시청 출입기자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며 500만원을 받은 뒤 다른 의원을 통해 기자들에게 점심식사와 함께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이씨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자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했다. 최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 다리 건설현장 철근 무너져 6명 사상

지난 31일 오후 5시경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설치에 위해 조립중이던 철근 더미가 무너지면서 인부들 5명이 부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현장 인부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자체 구조작업이 이뤄졌으나 김씨는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씨 등 5명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목격자 김모(43)씨는 "콘크리트를 붓기 전 작업으로 철근 조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근 더미가 쓰러져 내리면서 인부들을 덮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31일 오후 5시30분경 사고신고가 들어왔으나 그 때는 이미 현장 인부들이 사상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여서 병원으로 먼저 출동했다"며 "인부들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토대로 철근이 쓰러진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금현교 건설현장은 S건설의 하청업체인 D토건이 공사를 맡아왔으며 경찰은 두 업체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파악, 과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 교사가 또 초등생 지문채취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학생을 찾기 위해 지문을 채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해당 교육청이 조사가 나섰다. 지난 2일 의정부 교육청에 따르면 의정부 모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이모(30·여)씨는 지난 4월 27일 아침자습시간에 한자 시험을 치른 뒤 이를 전 잃어버린 자신의 지갑을 훔친 범인을 찾아 선도하겠다고 스태프용 인크를 돌리며 학생 40명에게 시험지 뒷면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했다. 이씨는 학생들에게 "경찰에 지문을 남기면 범인을 알 수 있지만 선생님한테 누구인지 편지를 써 지갑이 있었던 곳에 놔달라"고 말하고 지문이 찍힌 시험지는 거두어 한자 담당 선생님에게 넘겼다. 이씨는 지난 달 25일 자신의 지갑을 교실 텔레비전 앞에서 발견했으나 현금 8만원은 사라진 상태였다.

## 광릉 산림동물원 입장객 제한한다

### 하루 200명만 관람권 배부해

7년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된 포천시 소흘읍 국립수목원 내 '산림동물원'의 하루 입장객수가 제한된다. 국립수목원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입장객을 200명(오전·오후 각 1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또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관람권을 배부하고, 관람객들을 입장시간 5분전까지 산림동물원 입구로 모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림동물원은 현재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 두 차례 개방되며, 해설사가 관람객들에게 동물원을 안내하고 있다. 산림동물원은 100ha의 넓은 숲에 18종 130여마리가 살고 있으며, 점점 모습을 감추고 있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송지현기자 1070-sh@hanmail.net

## 검찰 첫 여성 부장검사 탄생



지난 7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에 여성 부장검사가 발령을 받았다. 조희진(41·사시 29회·사건) 검사, 법무부 검찰국 연구검사로 있다가 이번에 의정부지검 형사 4부장으로 부임했다. 조 신임부장은 1990년 검찰에 입문한 현직 여검사의 최고참이다. 82년 첫 여검사였던 조배숙(48·사시 22회)·임숙경(52· ) 변호사가 86년과 87년 각각 판사로 전환한 뒤 끊어진 여검사의 맥을 잇고 있다. 조 신임부장은 2002년 8월 부부장인 서울고검 검사로 승진, 여성으로서 첫 간부급 검사 기록에 이어 이번에는 첫 여성 부장검사 기록을 세웠다. 조 신임부장은 90년 서울지검으로 부임한 뒤 수원지검과 서울지검 북부지청을 거쳐 98년에는 법무부 초대 여성정책 담당관을 지내며 전국 검찰청에 '가장 강력 전담검사제'를 도입했다. 2002년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지난해부터 법무부 검찰국 연구검사로 근무해왔다. 지난 3월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 이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는 100여명의 현직

여검사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여자검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 '바꿔주세요'



▲ 왕방산 공단 입구에 세워진 간판이 비바람에 훼손돼 있다.

# Family Resort 푸른언덕(구 신한연수원)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여유롭고 편안한 야외결혼식장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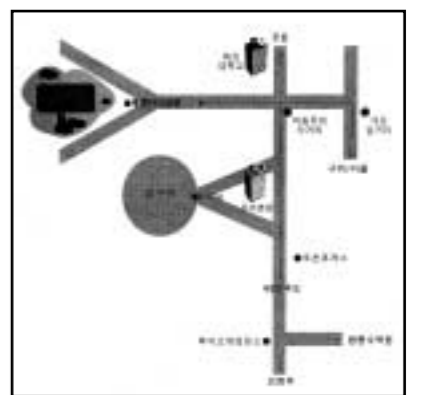


그동안 잊고 지냈던 주위에 소중한 분들을 모시는 공간으로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과 웃음,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푸른언덕으로 가족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시설이용안내
- 식당
- (한식·양식 실외)
- 산책로
- 운동장
- 야외수영장
- 나루터
- 정자
- 야외토론장
- 연못



푸른언덕 식당 전경



회갑잔치·돌잔치·한정식·왕갈비·석쇠장어구이·송어회·바베큐·뷔페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75-11//예약문의 : 031)541-0184, 016-703-6522// 상무 : 편 경 자